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2

2022

차 례

절세위인들 3

혁명은 누가 선물하지 않는다 3

생일 85 돐상을 받은 로씨야의 전쟁로병 4

조선로동당의 자랑이고 제일 큰 힘이라고 하시며 5

오늘의 조선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5 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사상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5 차전원회의소집목적과 중요성 ...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5 차전원회의 기본정신 7

조선로동당의 공격정신, 투쟁정신이 깃들어있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 8

어머니당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신념이 비껴있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 9

조선식사회주의의 활기찬 전진을 배가해준 력사적인 회의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5 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11

주체화의 기치높이 자립경제의 쌍기둥을 억척으로 11

전력증산을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 활발히 전개 13

현대적인 구급의료설비개발사업 적극 추진 14

조선사회과학자협회 KASS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소식 18

특 집 22

좌 담 33
군민일치로 극복한 대동란 33

외국인의 목소리 40

도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집필 40

실 화 45
승용차안에서의 《강의》 45
세번의 《아니?!》 48

조선사회과학자협회
KASS

혁명은 누가 선물하지 않는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루과이 3 월 26 일운동 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을 택한 이 운동의 립장을 적극 지지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에 구걸하여 자기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짓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식대로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은 누가 선물하지 않는다고, 혁명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 투쟁하여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 원인은 바로 그 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자기 식대로 혁명을 하지 않은데 있다고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생일 85돐상을 받은 로씨야의 전쟁로병

1996년 어느날 고령의 한 로인이 조선일군들의 안내속에 로씨야주재 조선대사관을 방문하였다. 그는 전쟁로병인 니꼴라이 랴쉔꼬였다.

어느 한 방으로 들어서던 로병은 놀라움에 걸음을 멈추었다. 산뜻하고 정갈하게 꾸려진 방에 생일 85돐을 맞는 그의 생일상이 마련되여있었던것이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현실앞에서 그는 크나큰 충동과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일군들로부터 생일상에 깃든 사연을 전해들으며 그는 뜨거운것을 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가 안해도 없이 생일을 맞는다는데 생일상을 잘 차려서 보내주자고, 매해 조선에 와서 치료도 받고 여생을 즐겁게 보내도록 해주자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조선이 해방된 후 자기가 평양에서 사업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기 위하여 그이의 댁으로 찾아갈 때마다 자기의 손을 다정히 잡아 이끄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이 삼삼히 안겨왔다.

그 잊을수 없는 위인의 인정미 넘치는 손길이 인생말년에 이른 때에도 자기에게 끊임없이 미쳐오는것이였다.

그는 솟구쳐오르는 감격을 걷잡지 못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조선로동당의 자랑이고 제일 큰 힘이라고 하시며

2016년 1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95년 10월 10일 청년전위들에게 혁명의 계주봉인 홰불봉을 넘겨주시는 영상사진문헌과 사적물에서 이윽토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그이께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청년들을 대표하여 홰불봉을 넘겨받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를 둘러보면 어느 나라나 청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지만 조선에서는 청년들이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아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청년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어려있는 영상사진문헌과 사적물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는 조선로동당의 자랑이고 제일 큰 힘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사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소집목적과 중요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의 집행실태가 중간총화되고 하반년도 사업방향과 투쟁방침이 책정되였다. 또한 국가적인 중대 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기 위한 실천행동방안들이 토의대책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제8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한 목적과 중요성은 2022년 상반년도투쟁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성과들을 장려, 확대하고 나타난 결점들을 극복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방대한 과제들을 완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실행담보를 적시에 보강하는것과 함께 전당, 전민을 다시한번 각성시키고 궐기 시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기본정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로 준엄한 국난을 타개하며 올해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에는 조선로동당의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굴할줄 모르는 투쟁정신이 깃들어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에는 또한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신념이 비껴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심장깊이 새기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올해를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공격정신, 투쟁정신이 깃들어있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에는 조선로동당의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굴할줄 모르는 투쟁정신이 깃들어 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방식은 완강한 공격전이다.

부닥친 도전과 장애앞에서 동면하거나 굴복하는것은 혁명의 퇴보와 실패를 초래하는 자멸의 길이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투쟁기풍과 인연이 없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수록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특유의 령도방식이다.

이룩된 긍정적인 성과들을 장려, 확대하고 결점들을 극복하며 과학적인 실행담보를 적시에 보강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공격정신의 발현이다.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조성된 엄혹한 형세를 주체적힘, 내적동력강화의 호기로 반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과 방역대전의 두 전선에서 공격정신,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기어이 승리를 안아오려는 조선로동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뚜렷이 과시되였다.

어머니당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신념이 비껴있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에는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신념이 비껴있다.

인민대중속에 생존의 뿌리를 박고있는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것은 조건과 환경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최중대사이다.

조선인민을 세상에 높이 떠받들기 위하여 당이 필요하고 인민정권이 필요하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정치철학, 정치리념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열과 정을 지니고 고생을 겪는 인민들곁으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다가가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은 농사와 인민소비품생산을 올해 경제과업들중 급선무로 제기하고 중요대상건설과제와 농촌살림집건설의 첫해 과제를 반드시 수행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면한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것은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들의 세기적숙망과 리상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식사회주의의 활기찬 전진을 배가해준 력사적인 회의

력사적인 올해를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가 비등되는 속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는 미증유의 엄혹하고 간고한 시기를 더 강해지고 더 세련되는 기회로 반전시켜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투쟁방침을 책정한 의의깊은 회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과 보고는 억센 의지, 완강한 분발력을 발휘하여 올해의 투쟁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진로를 밝힌 고귀한 실천강령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올해 조선로동당이 내세운 방대한 과제들을 무조건 완결하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며 사회주의건설과 국가운영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믿음직한 환경을 마련해주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시련속에서 다지고다져온 불패의 전진동력으로 부흥강국의 새시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과감히 펼쳐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와 백절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하였다는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주체화의 기치높이 자립경제의 쌍기둥을 억척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현존생산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 능력조성과 현존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혁신적인 공법들을 련이어 창안도입하면서 주체화대상공사를 힘있게 진척시키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며 철강재 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련속조괴기설치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박력있게 진척시키고있다.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새 능력조성과 현존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배가의 분발력을 발휘하고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공사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건설을 위한 기술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촉매생산공정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도 카바이드전기로대보수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전력증산을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 활발히 전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전력생산의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는데서 새 기술도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다시금 자각한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이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각 생산단위와 해당 과학연구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발전설비들의 대당출력을 제고하고 보이라연소효률을 높이는 등 현시기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절박하게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사업들을 기동성있게 조직전개하고있다.

각지 전력생산지들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신속히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 발전소들에서는 전력생산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각지 수력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수력발전기지들에서도 실시간 효률측정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어 뚜렷한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현대적인 구급의료설비개발사업 적극 추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보건부문에서 현대적인 구급의료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의료기구연구소에서 이미 개발한 호흡기계통과 심장혈관계통 등의 질병을 앓고있는 환자의 치료에 많이 쓰이는 필수적인 구급의료설비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세련완성시키기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있으며 의료기구공장들에서 계렬생산을 위한 준비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의료기구공업관리국에서는 가까운 몇해안에 치료예방기관들에 현대적인 구급의료설비들을 보내주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에 이바지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개발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과학연구단위와 생산단위와의 협동연구가 중시되고있다.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자체로 만든 구급의료설비를 가지고 묘향산의료기구공장으로 달려간 의료기구연구소의 연구사들은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 현지에 나와있는 해당 전문가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설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갱신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고있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에서는 개발사업이 끝나는것과 동시에 계렬생산에 들어갈수 있도록 공정들을 꾸리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다.

조선이 이룩한 방역대승

8월 10일
최대비상방역체계가동
91일

조선로동당 방역정책의 승리

조선이 이룩한 방역대승

8월 10일
최대비상방역체계가동
91일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

조선이 이룩한 방역대승

8월 10일
최대비상방역체계가동
91일

조선식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승리

조선이 이룩한 방역대승

8월 10일
최대비상방역체계가동
91일

조선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발표 10돐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 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발표 10돐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2022년 11월 29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과학, 교육부문, 당간부양성기관의 교원, 연구사,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2년 12월 1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에서 제시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 사회과학자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조선식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발표 10돐을 뜻깊이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주체적사회과학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조선의 사회과학을 영원히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주체적사회과학건설의 불멸의 대강이라고 격찬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는것을 주체적사회과학건설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10 년간은 조선의 사회과학이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여온 승리의 로정이였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이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적방법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하고 력사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을 사회과학건설의 원칙적요구로,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해명하여 그것이 실천에서 은을 내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분야들을 개척하고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을 사회과학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해주시였기에 우리의 사회과학이 가장 뚜렷하고 옳바른 방향과 원칙, 투쟁과업과 방도를 가지고 더 높이, 더 빨리 발전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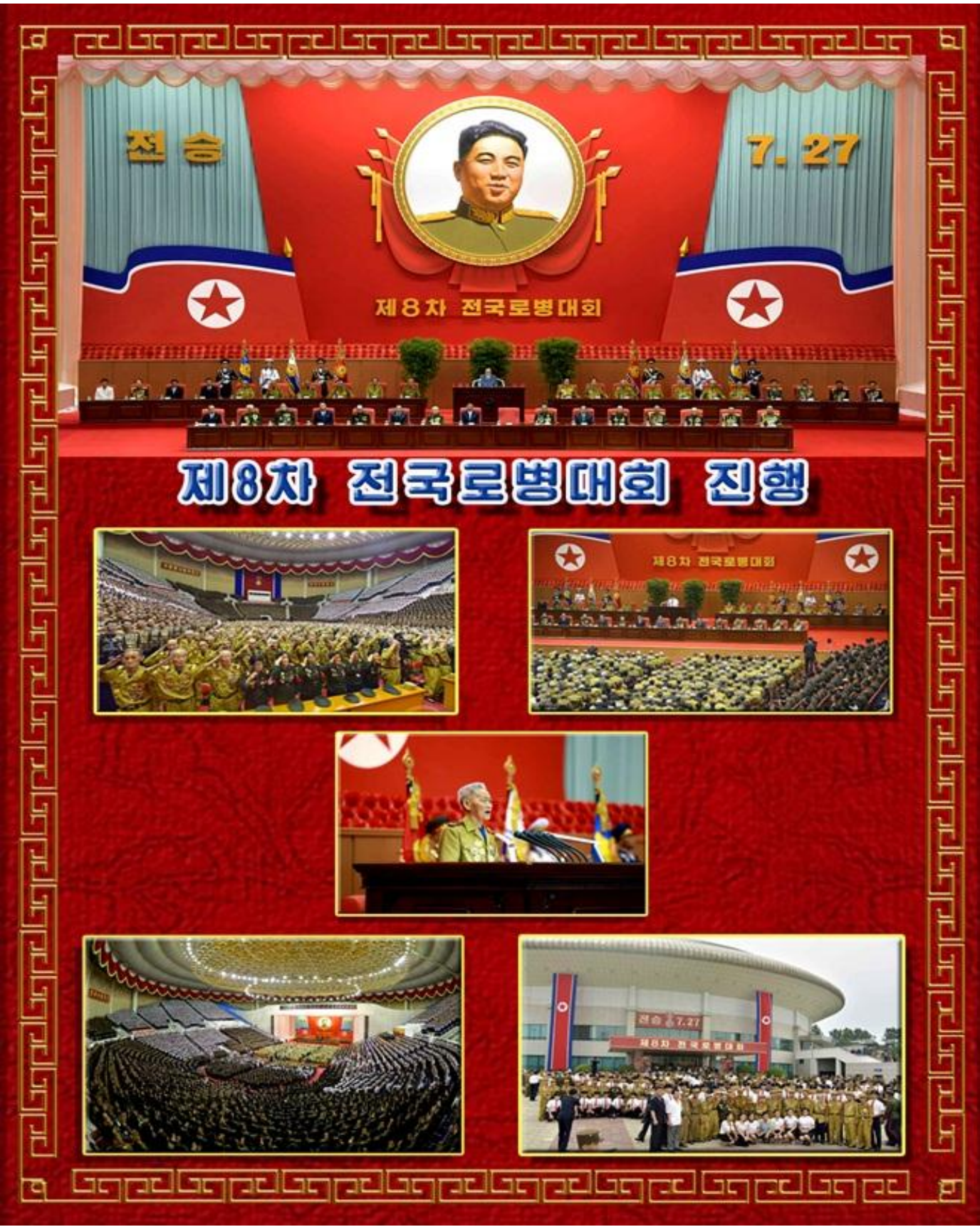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며 나라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억척으로 다지고 경제건설과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연구해명하여 실천에서 은을 내도록 하는것은 혁명적인 사회과학의 기본사명이고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자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실천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내여 연구대상으로 삼고 깊이있게 풀어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온 나라에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오늘의 시대에 사회과학연구에서 도식과 틀을 깨는것은

사회과학연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고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하는 현시대에 사회과학인재육성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주체적사회과학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모방과 도식, 침체와 답보를 불사르고 한가지를 연구하고 창조하여도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것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유능한 혁명인재, 실천형의 사회과학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냄으로써 주체적사회과학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조선식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해나가고있는 현시기 사회과학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있다고 강조하면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과학자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특 집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경축
공연 및 야회 진행

7.27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겁게 휴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을 경축하여 공연들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경축 대형요술 및 교예공연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경축 미술전람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경축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군민일치로 극복한 대동란

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오늘의 조선을 알고싶어하는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을 위하여 이번호 통보에 조선에서 군민일치로 주체111(2022)년 5월의 대동란을 성과적으로 극복한데 대한 이야기를 담자고 협회 연구사들과 또다시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사회자(리금희): 지난 2년남짓한 기간에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이고 헌신적인 조치들에 의하여 억척으로 고수되여온 방역장벽에 지난 5월 파공이 생기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이 건국이래 처음으로 겪는 대동란이였습니다.

그 대동란을 조선인민이 믿음과 기대속에, 안정감을 가지고 지어 북받치는 감격속에 극복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듣고싶습니다.

김창경: 지난 4월말부터 수도를 기본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갑자기 열병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열리고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정치국결정이 채택되였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상시를 예견하여 비축해놓은 의료품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가동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강도높은 봉쇄상황속에서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충을

최소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천순금: 정치국회의를 마치신 그 길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전국적범위에서의 전염병전파상황을 신속히 억제관리하고 방역전에서의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주광민: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협의회를 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긴급해제되는 예비의약품을 신속히 보급하는 문제를 집중토의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최정애: 인민군대의 군의들이 당중앙의 붉은 파견장을 가지고 즉시 평양시의 약국들에 들어가 약품공급과 치료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인민들속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왔다, 우리 아들들이 왔다는 환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인민들이 당의 진정어린 사랑을, 인민군군인들의 인민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을 실지 페부로 체감하게 되였던것입니다.

사회자(리금희): 인민들이 우리 아들들이라고 정담아 부르는 인민군군의들의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미담들도 많이 태여났는데 그중 몇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경: 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군대에서는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군민일치를 실현하는데서 주동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의 뜻을 정히 받들어 인민군군의들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천순금: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도모하기

위한 판매방법을 모든 약국들에 도입하여 인민들에 대한 약품공급사업부터 책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보장사업에서 이룩된 우수한 경험들을 일반화하면서 고려치료경험자료와 유열자치료경험자료를 리용한 해설선전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약국들에 하루 24시간 때없이 찾아가도 군의들이 너무도 친절하게 대해주니 모든 병이 저절로 나을것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광민: 군의들이 인민의 병치료와 건강을 위해 바치는 진정과 성의는 그뿐이 아닙니다. 장수상점 만경대분점에 나간 군의들이 먼저 시작하여 오늘은 수도의 수백개약국의 군의들이 약품주문대장까지 만들어놓고 봉사하고있습니다. 약품주문대장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 주문한 의약품과 함께 식구수와 공급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군의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그 대장과 더불어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펴났습니다. 주민들이 주문한 의약품을 마련하기 위해 시안의 거의 모든 약국들을 찾아다닌 군의들이 있는가 하면 의약품들을 안고 하루동안에 수십세대의 가정을 찾은 군의들도 있었습니다. 약국에 찾아오는 시민들에 대한 봉사만 진행하지 않고 그들은 위급한 환자들을 찾아가 친혈육의 정으로 의료봉사를 하였습니다.

김창경: 정말 이번에 인민군군의들의 극진한 사랑과 정성에 의하여 소생한 생명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락랑구역 벽지도리에 있는 어느한 약국에 파견된 인민군군의들은 한 농장원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였다는 긴급통보를 받은 즉시 환자의 집에 달려가 병상태를 진찰하고 서슴없이 자기들의 많은 피를 바쳐 그를 소생시켜주었습니다.

사회자(리금희):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 지어 피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의 단면이 비낀 가슴뜨거운 일화입니다. 그런 일화가 많다고 봅니다.

최정애: 그렇습니다. 당과 국가에서 아끼고 내세워주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질병도 자진하여 치료해준 군의들도 적지 않습니다. 평천구역 봉학동에 있는 어느한 약국에 나간 군의들은 중태에 빠진 전쟁로병을 소생시켜주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여 완쾌시켜주었습니다.

영예군인녀성을 위해 많은 날 정성을 바친 군의들도 있는데 그들은 몹시 미안해하는 환자에게 영예군인동지들은 자기들의 전우이라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자식들을 자신들이 대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제산구역과 중구역에 파견된 군의들도 수십일동안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정성을 바치였습니다.

주광민: 어떤 군의들은 포전까지 나가 모내기로 바쁜 농장원들에게 물까지 받쳐 약을 공급하였으며 전투차운전수들은 밤시간을 리용하여 농장의 모내는기계도 수리해주고 탁아소의 울바자도 도색해주는 등 인민을 위한 좋은 일들을 많이 찾아 하였습니다.

천순금: 정말 인민을 위한 군의들의 헌신은 방역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1일 력포구역 소삼정리에 위치한 약국에 파견된 군의들은 하반신이 마비된 12살 소녀에 대한 치료전투를 결심하게 되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지워진 의무도 아니였고 경험도 없었지만 그들은 치료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치료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해전에도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못본 상태였던것입니다. 군의들은 완치를 위해 지혜를 합치고 서로 고무격려하며 고심분투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친 눈물겨운 정성으로 마침내 소녀가 걸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소녀는 제손으로 엮은 들꽃다발을 군의들에게 안겨주며 《고맙습니다. 나도 꼭 인민군대가 되겠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노래를 잊고 살았던 그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부모들은 물론 모두가 흐느끼면서 덕과 정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절을 삼가 드리였습니다.

사회자(리금희): 그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붉은 파견장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당의 사랑과 보살핌의 손길로 인민을 위하는 인민군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이 우리 수령,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사무치게 절감한 대동란의 나날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날에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대를 위하는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에 대한 미담도 많이 태여나지 않았습니까?

김창경: 군인들과 인민들사이에 오고간 뜨거운 정과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24시간 의약품공급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하고 환자들을 성심성의로 치료하는 군의들을 위해 식사를 마련하는 등 성의를 바치려고 하였지만 군의들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한 주민은 약국에 가만히 식사를 두고왔는데 군의들이 끝내 집주소를 알아가지고 밥값을 가져왔습니다. 주민은 너무도 섭섭하여 수고하는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밥도 못해주는가, 어머니에게 밥값을 내는 자식들이 어디에 있으며 밥값을 받는 어머니는 세상에 어디 있는가고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주민과 군의들사이에 오고가던 밥값이 나중에는 구역당 책임일군의 책상우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최정애: 군의들과 수도시민들사이에 오고간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의 어느 구역, 어느 마을, 어느 약국을 찾아도 다 들을수 있습니다.

인민군군의들이 인민에게서 받는것은 편지와 그림뿐이였습니다.

생명을 지켜준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가 담긴 편지와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혈연의 감정이 담긴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약국마다에 쌓여있습니다. 인민군군의들은 인민들의 지성이 담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의 가정,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주광민: 최선생님이 이야기한것처럼 그 과정에 군의들과 인민들이 주고받는 정과 사랑은 나날이 더욱 뜨거워졌고 모두가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분발해나서게 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의들을 위해 준비하였던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가정, 후방가족들과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의료일군들과 약품봉사자들은 군의들의 눈물겨운 헌신의 모습에서 인민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잘 배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사회자(리금희): 훌륭한 전통과 깊은 뿌리를 가진 조선의 군민일치가 어떤 숭고한 높이에 올랐는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긴급상황이 제기되였을 때 국가가 군대를 동원하는것은 상례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동원되는 군대의 사상정신상태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열도는 다 같지 않습니다. 인민을 친부모, 친형제같이 여기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인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참다운 조선인민군대와 견줄 군대는 없다고 봅니다.

김창경: 예.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키우신 우리 인민군군인들입니다.

전염병이 급속히 전파되는 수도의 약국들에 나가시여 인민들과의 상담정형, 인민들이 많이 찾는 약품과 공급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가슴에 새긴 군인들, 당중앙의 믿음과 인민사랑이 어린 붉은 파견장을 받아안은 군인들이였습니다. 그들의 귀전에는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새길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의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이 쟁쟁히 울리였습니다.

최정애: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과 의지, 자애로운 영상과 신심에 넘친 말씀은 인민군군인들에게 솟구치는 열과 정, 바치고 바쳐도 진함없는 사랑과 의리를 주었습니다.

천순금: 온 나라의 가정에 웃음과 평온이 인차 다시 깃들기를 바라시며 몸소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 보내달라고 본부당위원회에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량없는 은정은 우리 인민과 군인들을 한없이 격동시키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만도 전국적으로 7 400여명의 근로단체 일군들과 1만 6 200여명의 동맹원들, 9 200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30여종에 52만 3 000여점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많은 량의 식량과 부식물, 자금을 해당 단위들과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에 지원하였습니다. 소학교학생들까지도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주광민: 선생님들이 일치하게 말한바와 같이 수령과 인민, 군대와 인민, 주민들호상간에 혈연의 정이 끝없이 흐른 못잊을 나날, 일심의 힘, 군민일치의 힘으로 이긴 대동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은 상상밖의 시련속에서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두려울것도 고민할것도 없으며 군민일치로 뚫지 못할 난관, 점령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입니다.

사회자: 위대한 수령의 영명하고 희생적인 령도밑에 군민일치로 전국적인 악성전염병의 급속한 전파라는 준엄한 난국을 이겨낸데 대한 참으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집필

민주꽁고 마씨스트기금 위원장이며 마씨스트대학 명예학장인 박사 무제네 오베오 벨 페르디낭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론문을 집필하였다.

론문에서는 현시기 사회주의조선을 책임지시고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론문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신 혁명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만 걸어왔으며 오늘 조선로동당은 진정한 혁명적당으로 되고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보다 힘있게 벌리도록 인민들을 이끌고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을 위한 참다운 새 사회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고계신다고 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지속적인 복리를 위한 참다운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고있는데 그로 하여 조선인민은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의 혜택을 누리며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수있는 조건들을 보장받고있다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정치리념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다고 하였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진수를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강화하신 혁명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던 이민위천의 리념이 철저히 구현되고있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사회가 전진하고있다고 하였다.

나라의 모든 기관들은 인민대중의 걱정을 덜어주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고있으며 그 어떤 부정부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을 국가부담으로 돌봐주고있다고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 그리고 각이한 일터들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은 당과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학습하고 일하고 생활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해마다 아름다워지고있다고 하였다.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해마다 웅장화려한 거리들과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수도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들만이 아니라 농촌마을들도 아름답게 개변되고있다고 하였다.

현재 사회주의조선에서의 생활은 락원에서의 생활을 방불케 하고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에 대처하여 초기부터 예방, 검사, 분석과 치료에서 세심하고 손색없는 대책들을 취하신데 대하여서도 서술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는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예로부터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준비되여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원쑤들이 제멋대로 강권과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있다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정예부대로 키우시였으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적대세력들이 벌리는 침략책동을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짓부시며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까지 단행함으로써 적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률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였다.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오늘 그 어떤 원쑤들의 군사적위협에도 대응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자체의 힘으로 핵무력건설을 완성하도록 하는 승리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였기에 사회주의의 보루인 주체의 조선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라고 하였다.

론문에서는 다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동북아시아지역을 놓고보면 여기에는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있고 미국은 이 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며 침략과 전쟁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침략과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평화가 지속적이며 영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노력하고 투쟁하고계신다고 서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적인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있다고 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아시아대륙을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고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아시아의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 세계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해버리고계신다고 서술하였다.

현시기 세계자주화위업은 조선에서 창시되고 전 세계에 파급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고있다고 하였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되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체계화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고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였다.

아시아에서 태양이 빛나고 별이 빛나며 봉화가 타오른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선의 봉화는 새로운 세계,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친선적인 세계를 위한 빛을 뿌린다고 하였다.

끝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들은 세계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21세기는 **김정은**동지의 세기로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승용차안에서의 《강의》

렴정실

평양고려호텔의 드넓은 층홀을 지나며 하리쉬 굽따는 아들 아쉬쉬 굽따 에게 말하였다.

《아이들은 내 차에 태우자.》

그 말을 듣자 손자손녀들인 6 살난 꼬마 아르나브와 8 살난 소녀 아니카는 좋아라 박수를 쳤다.

아쉬쉬 굽따는 몹시 당황해났다.

《일없어요. 아버지, 승용차가 비좁은데 아이들은 우리가 데리고 뻐스에 타겠어요.》

2019 년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 온 각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들과 함께 그들가족들도 평양의 여러곳을 참관하게 되여있었다.

할아버지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이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인 하리쉬 굽따는 그 직무에 따라 승용차를 타고 다니게 되여있는데 애들을 곁에 앉히고 다니겠다니 될말인가.

아버지가 반대하거나말거나 애들은 밖으로 달려나가 할아버지의 승용차안에 올라탔다.

아쉬쉬는 허거픈 웃음을 짓고말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 할지라도 그 차의 사명이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것이지 한 가정의 뉴대를 보존해주기 위한것이야 아니지 않는가.

또한 아이들이 승용차에 타면 좌석이 매우 불편할것이였다.

그러나 늙은이의 생각은 돌려세울수 없었다.

《됐다. 아이들때문에 불편한건 하나도 없다.》

늙은이의 고집에 젊은이의 주장이 꺾인셈이였다.

그리하여 승용차에는 6 명이 빼곡이 타게 되였다. 운전사와 통역, 하리쉬부부와 손자, 손녀…

…

저녁에 숙소에 돌아온 아쉬쉬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래일부터 뻐스에 타고 다니자.》

이때였다. 방에 들어오던 하리쉬가 그의 말을 들었다.

《무슨 소릴 하는거냐? 애들은 래일도 이 할아버지와 함께 타야 해.》

《아버지, 자리도 비좁은데다가 남들이 보는 눈도 있지 않아요?》

《뭐라구? 넌 내가 할아버지이기때문에 애들을 차에다 태우고 다니는걸루 생각하느냐? 네 생각이 짧구나.

내 말 들어라. 난 이 나라에 많이 왔기때문에 그 어디에 가도 잘안다. 넌 그래야 이번까지 두번째가 아니니? 네 처는 처음이구…

저 애들을 이번에 데리고 온건 관광을 목적으로 한거냐?

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이 할아버지가 다니던 모든 길, 평양의 그 어디나 네가 설명할수야 없지 않니? 난 저애들이 앞으로 이 할아버지가 걸어온 그 길을 이어 걷게 하려고 부디 내 차에 불편스러운대로 태우고 다니는거다.

아이들은 어릴 때 본것을 제일 기억에 새기는것이지. 그래서 난 저 애들의 앞날을 위하여 <해설강사>가 될것을 결심한게야.》

아쉬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다음날도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차에 올랐다.

평양방문 전기간 승용차안에서 할아버지는 애들에게 《강의》를 하였다.

만경대고향집에 갔다 올 때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에 대해, 주체사상탑에 갔다 올 때에는 시대의 지도사상에 대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갔다 올 때에는 조선전쟁의 진상에 대해…

조선과 잇고 산 할아버지의 한생이 이렇게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있었다.

그 나날 손자, 손녀의 정신의 키는 부쩍부쩍 컸다. 미래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자라고있었다.

세번의 《아니?!》

인 훈

로씨야의 따쓰통신사 특파기자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반신반의의 외마디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

경쾌한 음악이 울려퍼지는 선거장…

공화국기와 아름다운 꽃송이들로 단장된 선거장입구…

그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는 류다른 선거장풍경이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을 맞으며 선거장을 취재하기 위해 제 17 호 새마을선거구 제 153 호분구(당시 평양 326 전선공장)에 나온 따쓰통신사 기자는 처음부터 흥겨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앞가슴에 훈장과 메달들을 달고 저저마다 선거장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웃음이 한껏 어려있었다.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선거장의 분위기는 감동적이였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장의 춤판은 더 한껏 고조되였다.

그 다음 그는 대의원후보자의 사진이 게시된 선거장입구로 다가갔다. 거기서 그는 또 한번 놀랐다.

《아니?!》

의문인가. 감탄인가.

그의 입에서 두번째로 또 반신반의의 외마디소리가 새여나왔다.

이곳 선거구에서 추천한 대의원후보자가 녀성이라는것도 놀라웠지만 그 녀성이 평양시의 어느 한 구역 도시시설사업소 작업반장이라는 것이였다.

리해하기 힘들었다. 어떻게 도로관리원들의 작업반 반장이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국회의원》이 될수 있단말인가.

그는 후보자의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사진기를 갖다 대였다.

이름은 조길녀.

렌즈속에 들어오는 그 녀성의 모습은 너무도 평범하였다.

그가 조선에 있는 기간 맞다들린 선거는 두번째였다. 첫번째는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였는데 그때에도 평범한 로동자가 후보자로 추천되여 선거자들의 지지표를 받는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때와는 다르지 않는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라면 지방주권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의 선거를 말하지 않는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는데서 그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인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명할수 있는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한것이였다.

로씨야의 특파기자는 조길녀녀성과 만났다.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현실이 기자인 그로 하여금 인민이 선출한 최고인민회의 녀성대의원후보자를 만나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선거장을 떠나지 못할 강한 충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체소한 몸, 해볕에 탄 가무잡잡한 얼굴, 터갈린 손등…

조선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입었지만 감출수 없는 로동의 흔적이 력력히 어려있는 모습이였다.

그는 자기 소개를 한 다음 이 녀성 대의원후보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되여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였습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라면 그 누구앞에서도 거만한 태도가 지극히 어울리련만 이 녀성은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말하였다.

《인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였을뿐입니다.》

《아니?!》

또다시 세번째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새여나갔다.

저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거유세를 하는 나라들에서는 도저히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인민이 대의원으로 선출한 이 녀성은 이제 틀림없이 자기가 포함된

인민의 리익을 대변할것은 뻔하였다.

로씨야의 특파기자는 말하였다.

《전번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보고도 커다란 느낌을 받았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나에게 잊을수 없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다년간 자진하여 도로관리를 한 평범한 녀성작업반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로씨야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장의 흥겨운 춤판은 계속되고있었다.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자기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인민의 복무자를 대의원후보자로 선출하고 선거에 참가한 저들이 어찌 이 날에 즐겁지 않으랴.

이런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리익이 침해될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것이다. 나라의 정사를 인민의 대의원들이 보기때문이다.